

2022-10-28 금-29토 함열-정읍-함라 여행

신나는 여행이었다.  
상정의의 초대로 갑작스럽게 이뤄진 여행  
내장산 단풍구경하기

함열에 가서 형님과 형수에게 인사드리고 각종 선물을 나눠드렸다.  
특히 에이스원글로벌의 항아데히드 혈액관련 영양제를 드려서 마음이 흡족하다.  
치매를 낮게는 못해도 마음의 위로라도 얻으셨으면...

형수예겐 산삼과 20만원을 드렸다.  
나도 뿌듯하다.

상정과 나리엄마랑 같이 정읍으로 달려갔다.  
새로 만들어진 도로가 많아 약간 해매다가 정읍 터미널 옛날짜장에 도착  
뒷문으로 들어서니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반갑게 인사나누고 간짜장과 짬뽕으로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이야기를 푸지게 나누었다.

내장산 단풍구경을 상정이 나리엄마와 나 셋이서 갔지  
다행히 차가 밀리리 않아서 쉽게 갔다 왔다.  
단풍이 완전하게 들지 않았지만 아랫부분 일부분의 단풍은 아름다웠다.  
웃고 즐기며 내장사를 구경하고 나올때는 버스로 5분만에 도착  
갈때는 1시간이나 걸렸는데...

윤영이와 균혁이 엄마랑 해동횃집에 가서 먹고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침을 튀기며 때리며 이야기하는 윤영이  
안절부절 못하는 지슬이 엄마  
중간에서 적절하게 조절하려는 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윤영이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 윤영이가 끝없이 질주하는 바람에 우리가 무릎서기로  
늦은밤 어둠을 뚫고 함라로 와서 난로를 피우고 잤다.

난 따뜻하고 좋았다.  
날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었구나.  
고마워라

아침에 일어나서 대봉 곶감을 맛있게 먹고  
아침 콩나물국으로 해장 속풀이를 하고  
각종 농산물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익산으로 나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고맙다고 문자와 카톡을 여러번 날려주었다.

용이 좋아하는 갯김치를 가져와서 용은 김치를 담그고  
난 신이나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상황  
즐겁고 보람찬 상정과의 일차 여행의 마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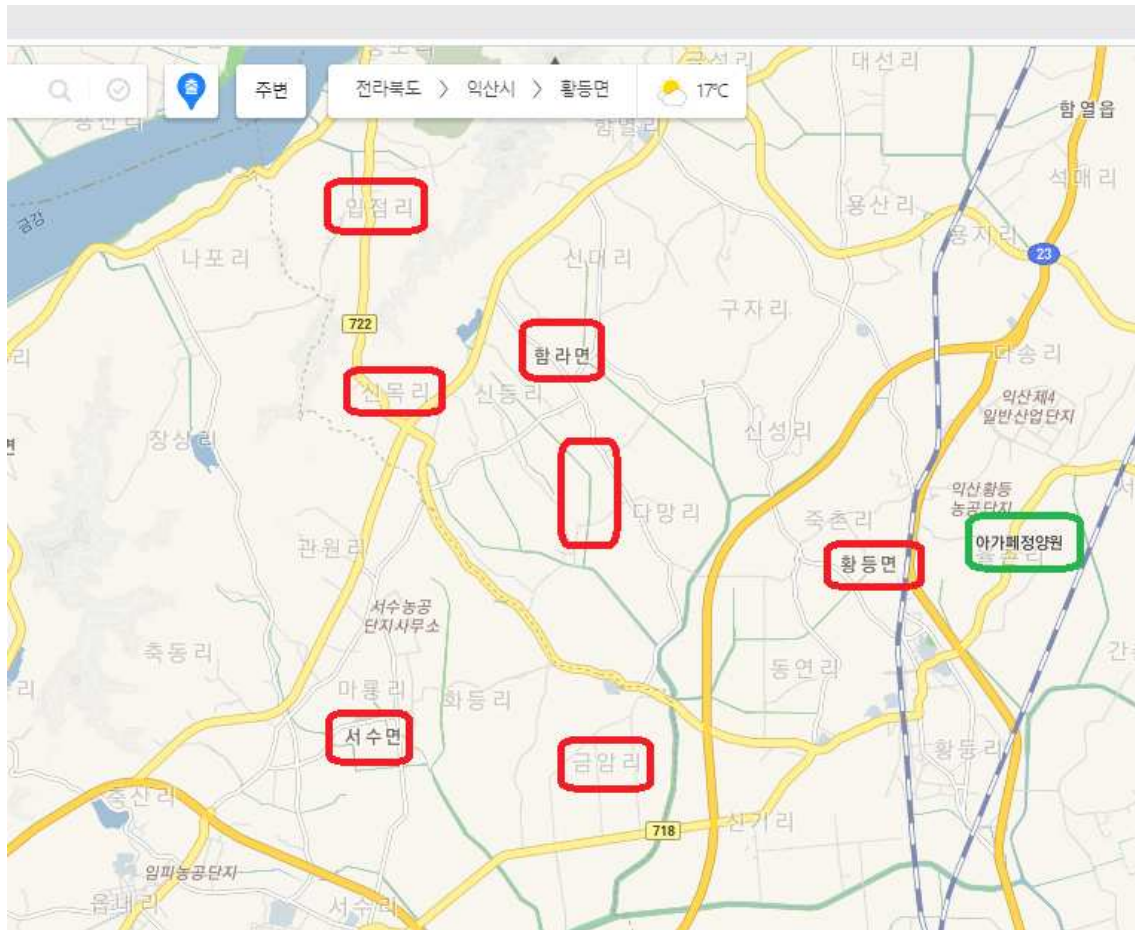
신목리 상정이 집 지도



신목리 상정이집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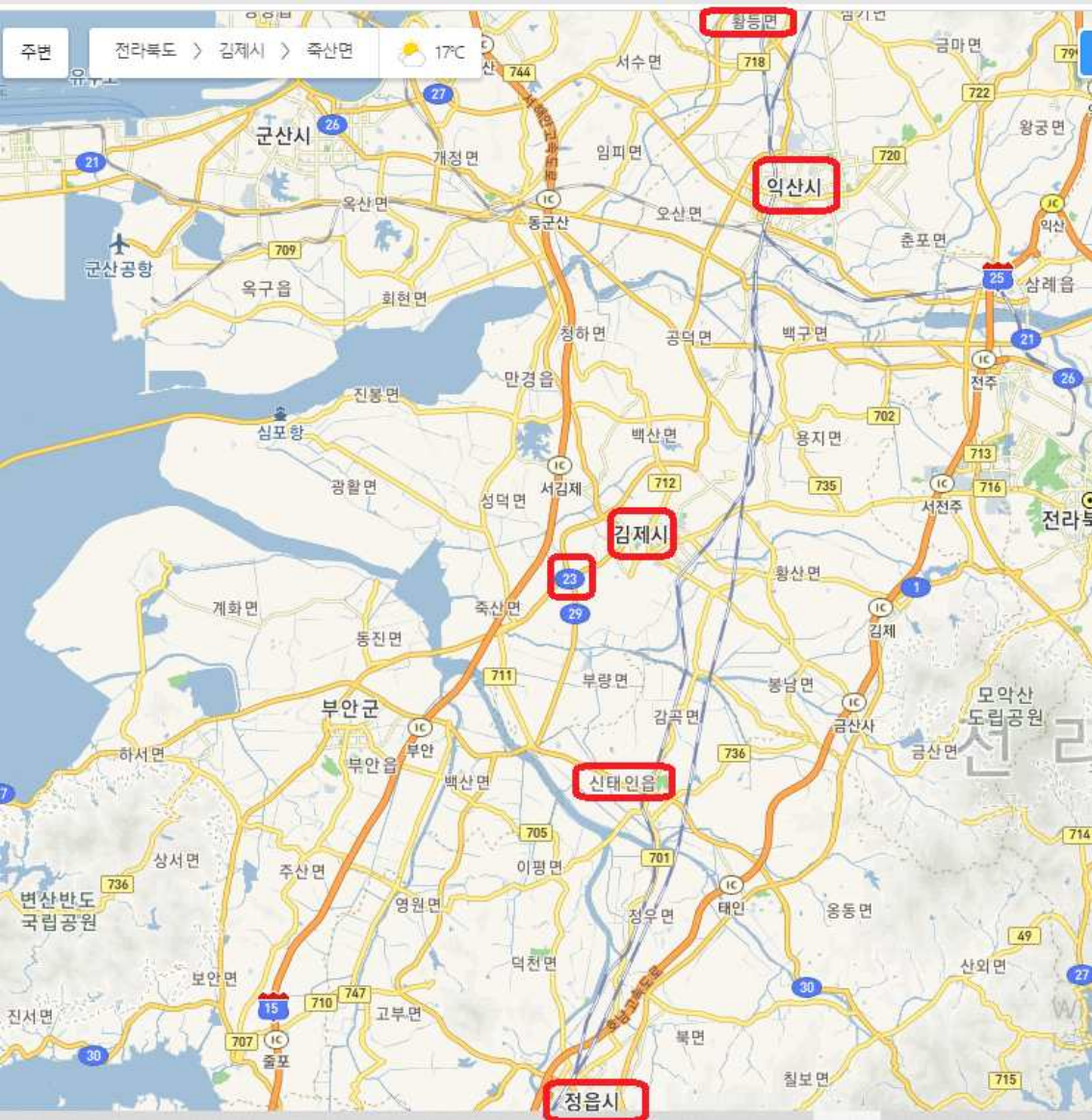


신목리-금암리-황등으로 이어지는 길





정읍까지 가는 도로 23번 국도



접읍터미널에서 내장산 가는 길

